

독서토론의 활성화를 위한 독서자료 활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f the Reading Material Use on the Reading Discussion

김 승 환 (Seung-Hoan Kim)**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독서토론의 활성화 방법 |
| II. 독서활동과 독서토론의 의의 | 1. 독서 토론자료 작성 방법 |
| 1. 지식기반사회와 독서활동 | 2. 독서토론 평가 방법 |
| 2. 독서토론의 의의와 궁극적인 목적 | V. 독서 토론자료 활용에 관한 분석 및 결과 |
| III. 독서토론의 실시와 진행 | 1. 독서토론 참가자 자신의 준비에 관한 결과 |
| 1. 독서토론의 실시 문제 | 2. 독서토론 전체 참가자들의 준비에 관한 결과 |
| 2. 독서토론의 진행 | VI. 결론 및 제언 |

초 록

독서후의 활동으로 독서토론을 실시하는 효율적인 방법을 터득하도록 하기 위해 독서토론 도서를 <분석식 독서법>으로 읽으면서 토론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여, 진행된 독서토론에 대한 결과를 스스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독서토론을 진행한 결과 <분석식 독서법>으로 토론도서를 읽지 않고 독서토론을 진행할 때 보다 토론도서에 대해 줄거리와 내용을 잘 파악하고, 전체적인 주제 파악과 토론할 주제를 적절하게 선정하여 토론에 참여한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독서토론을 진행하면서 자신들의 의견을 전달하는데는 전체적으로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활용한 당시는 아주 높게 나타났다.

주제어 : 독서토론, 분석식 독서자료, 독서후 활동

Abstract

The students were instructed to prepare the materials for the reading discussion as they read books by the analytical reading, in order to make them know the efficient method of the reading discussion as activity of after reading. As the results, They understood the plot and substance of the book, comprehend the whole subject and selected the subject of the discussion better after they read books by the analytical reading than after they didn't. But it's not satisfactory to communicate their own ideas mutually during the reading discussion as before.

Key Words : Reading Discussion, Analytical Reading Material, Activity of After Reading.

* 본 연구는 2002학년도 강남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강남대학교 인문학부 문헌정보학전공 교수 (rrrcamp@chol.com · rrrcamp@kangnam.ac.kr)

· <http://rrrcamp.org>

· 접수일 : 2004. 8. 12 · 최초심사일 : 2004. 9. 1 · 최종심사일 : 2004. 9. 1

I. 서 론

독서토론은 독서활동 중 가장 많은 독서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활동으로 여기면서 토론을 실시하지만 그렇게 좋은 결과를 얻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은 독서교육과 독서지도를 실시하는 지도자들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되면서 또 어떤 방법으로 실시했다고 해도 성공하지 못했다는 지도자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독서활동으로는 책을 읽히기 전 활동으로 독서동기를 유발하기 위하여 독서생활의 중요성과 독서의 목적을 이야기 해주거나, 읽을 책을 선정하는 방법이나 책 읽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독서생활을 이해시키기 위한 책읽기 준비활동이 있으며, 다음 단계의 독서활동으로는 책을 읽을 때 건강에 대한 문제 즉 독서위생에 관한 행동을 실제로 실천하도록 지도하고 책을 읽을 때 어느 정도 빨리 읽고 또 어떻게 정독을 해야하는 가를 지도하는 등의 독서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독서활동이 있다. 다음 세 번째 단계는 독서활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독서후의 활동이다. 어렵게 읽은 책을 통하여 스스로 느끼고 생각해 낸 것들을 혼자만이 소유하고 있다가 얼마 후에는 그 좋은 생각들을 실생활에 활용하지 못하고 놓쳐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독서후의 활동으로 읽고 느낀 내용을 또는 생각한 것들을 누구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발표할 수 있거나 토론할 수 있게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이러한 독서후의 활동은 또 자기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 여러 사람으로부터 검증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자기자신의 변화를 가져오는 더 좋은 기회가 된다. 특히 독서토론은 책을 읽고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 여러 사람과 논의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자기자신에 대한 내면의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어떤 목적으로 책을 읽힌다고 하더라도 독서토론은 독서활동 중 최종단계로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많은 독서지도자들은 이 독서토론을 통하여 독서지도의 극치를 이루려고 그 동안 많은 노력을 해 왔지만 실패의 경우가 더 많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자가 독서회를 꾸준히 운영하면서 수년간 독서활동을 전개할 수 있었던 방법은 독서토론을 실시하기 전에 독서토론 자료 준비와 독서토론 후에 개인 평가와 집단 평가를 실시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하여 꾸준히 독서토론을 진행할 수 있었다.¹⁾

본 연구는 책을 읽은 후 독서활동으로 독서토론을 실시하는 효율적인 방법을 개발하는데 있다. 독서토론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토론하는가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토론장에 나타나야함으로 토론은 어렵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독서 후의

1) <http://rrcamp.org> - 대학생 중심의 독서활동 동아리 <한국독서생활화연구회>에서는 매월 1회 독서토론을 실시하여 2004. 8월까지 215차 독서토론을 실시했다.

훌륭한 독서토론을 준비하기 위해 책 읽는 방법과 독서토론 자료 작성 방법을 제시하고, 독서토론 후에 토론 전반에 관한 평가를 개인 중심, 또는 단체 중심으로 독서토론 평가를 직접 실시하여 검토 분석한다. 즉 개발한 독서토론 자료를 독서토론에서 직접 활용한 결과를 평가를 통하여 독서토론의 활성화에 관한 결과를 알아보도록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학교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에서 독서회를 운영하는데 가장 어렵게 진행되는 독서토론을 쉽게 지도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학교도서관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또는 학급별로 독서활동을 전개하는데 유용한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독서후의 독서활동을 지도하는 독서지도자 들에게 유용한 독서지도 자료가 될 것으로 본다.

II. 독서활동과 독서토론의 의의

1. 지식기반사회와 독서활동

자본이 경제상의 중심세력이 되어 무한하게 이익을 얻으려는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하여 경제적 발전을 가져오기 위한 21세기의 사회변화에 의해 전개되는 사회가 곧 지식기반사회다.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상당한 수준의 인쇄자료들을 제대로 읽어내고 자신의 생각이나, 또는 이루어 낸 업적을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정리하여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동안 사회는 자본에 의하여 변화해 왔다. 제1의 물결 농경사회는 노동력이 곧 경제력이었기 때문에 노동력 부족으로 우리 나라가 다른 나라를 앞서갈 수 있다는 것은 어려웠다. 제2의 물결, 산업사회 역시 돈이 될 수 있는 지하자원인 자본이 곧 경제력이었기 때문에 우리 나라가 선진국이나 강대국이 된다는 것은 지하자원 부족으로 더욱 불가능했었다. 그리고 20세기 후반에 불어닥친 제3의 물결, 정보사회 역시 정보가 자본이 되어 우리 나라는 수많은 정보를 보유한다는 것은 어려웠지만 정보기술(IT산업)을 향상시켜 경제적으로는 강대국이나 선진국과 동등한 위치에서 활동할 수 있는 세계화를 이룩해 왔다. 이제 21세기 제4의 물결은 지식사회라고 하는데 지식이 곧 자본이 되어 지식기반사회를 주도할 지식인이 주도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나라는 이제 모든 국민들을 21세기 지식인으로 양성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사회변화에 적응력을 갖춘 사람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략이 된다. 21세기 지식인은 창의력을 갖춘 사람, 지식을 일상적인 삶 속에서 잘 활용하는 꾸준한 사고활동을 통해서 길러진다.

21세기 지식인은 창의력을 발휘하고 독특한 열정을 소유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전문지식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이해되어야 한다. 전문지식은 한 분야를 깊게 아는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좁은

범위의 지식만이 아니라 관련된 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통합해서 새로운 것을 창출해낼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지식인이 되기 위해 이러한 능력의 전문인이 되기 위해서는 독서를 통해 폭넓은 사고력을 길러야 한다.

21세기 지식인을 어느 시점에서 금방 튀어나오는 일회적인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지식기반사회의 초점에 맞추어 여기에 대비한 기초능력과 일반능력을 형성하기 위한 분명한 방향감을 담고 있어야 한다. 지식인은 스스로 지식이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탐구력, 문제 해결력, 네트워킹, 정보력, 성실성 새로운 것에 도전하려는 진취적인 사고와 행동을 종합적으로 갖추었을 때 올바른 지식인의 개념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종합적으로 모든 것을 갖춘 21세기 지식인은 독서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진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제 하루라도 인터넷을 활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으며, e-mail이나 홈페이지를 활용하지 않으면 시간적으로는 물론 물리적으로 불편할 뿐만 아니라 능률적으로 뒤떨어져 자기 발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우리는 핸드폰을 갖고 있지 않으면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되어 하루라도 핸드폰 없이 살아간다는 것을 생각도 해 볼 수 없는 사회에서 살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 e-mail, 홈페이지, 핸드폰은 21세기의 지식기반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정보매체가 되었는데 모두가 기술개발이나 새로운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는 가치가 없게 되었다.

지식기반사회에서는 물질과 에너지가 자본이었던 산업사회와는 달리 지식과 정보가 자본의 원천이 된다. 정보와 지식이 자원이 되면서 지식 정보산업의 비중이 몰라보게 증대되고 정보와 지식을 통해 경제적 가치인 자본을 창출하게 된다. 그래서 지식 생산성이 한 나라의 경제적 성공과 사회적 성공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도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따라서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정보와 지식 없이는 경제발전은 물론 사회 전반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컴퓨터 기술의 급속한 발달, 통신기와 통신망의 발달 및 이들의 보급과 확산으로 정보통신기술 활용의 일반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식 정보량의 증가 속도를 훨씬 앞서 가고 있다. 이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지식의 창출과 축적, 활용을 자극하여 지식기반사회로의 진입을 촉진하고 있다. 이러한 신기술은 금방 개발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이룩한 새로운 지식의 축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모두가 창의력에 의해 이루어진다. 창의력의 형성은 축적된 정보자료를 읽고 활용하는데서 형성된다.

지금까지는 현존하는 사물이나 사실을 확인하는 사실적 지식으로 충분하였지만,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새로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적 지식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리고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원을 발굴할 수 있는 정보원에 관한 지식과 그 문제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해결방법을 비판적으로 판단하여 규명할 수 있는 비판적 지식까지도 필요하게 되었다. 지식기반사회에서의 정보원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관계되는 자료를 읽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평소에 길러야 한다.

인쇄매체에 의해 생각하는 힘을 기르고, 내면의 세계를 건전한 인격으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독서활동은 여러 가지로 접근하는 전파매체에게 많은 시간을 빼앗겨 단순한 생각만을 습관화하는 생활을 되풀이하게 하고 있다. 물론 우리들은 살아가기 위해 할 일이 너무 많아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의 여유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인식하고 있다. 다만 창의력을 기르고 비판력과 판단력을 길러 지식이 기반이 되는 사회에서 지식을 창출해 낼 수 있는 훈련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꾸준히 계속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지식을 창출 할 수 있는 독서활동이 형성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또 내면의 세계를 건전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건전한 독서생활에 대한 시간의 할애가 너무나 적어 우리의 사회를 정화시킬 수 있는 국민들의 독서문화가 형성되지 않고 있다는 것도 또 큰 문제가 되고 있다.

2. 독서토론의 의의와 궁극적인 목적

일반적으로 토론이란 어떤 문제에 대하여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 할 때, 듣는 사람이 자기 생각과 다르거나 같을 때 의견을 논리적으로 제시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토론이라고 한다. 즉 어떤 문제를 두고, 여러 사람이 의견을 제시하면서 옳고 그름을 따져 좋은 결과를 얻으려고 논의하는 것이 토론이다.

그러나 독서토론은 토론도서를 선정하여 그 책을 읽고 나서 핵심이 되는 주제를 중심으로 토론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각각 이해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서로 의견을 나누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독서토론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목적이 있다. ① 책을 읽으면서 이해하지 못했던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다. ② 책을 아주 정확하게 읽는 습관을 기를 수 있다. ③ 자기의 생각을 논리적이며 효율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④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로 민주적인 소양을 기를 수 있다. ⑤ 발표능력을 기르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는 미덕을 기를 수 있다. ⑥ 독서 치료적인 차원에서 정신 건강에 크게 도움이 된다.

특히 독서토론을 경험했을 때 그 경험으로 인하여 다음부터 책을 읽을 때 토론을 준비하는 독서태도를 갖도록 하는 전략적인 목적이 있다. 읽고 있는 책이 독서토론 도서로 선정되지 않았어도 이 도서에 대하여 토론을 한다면 어떻게 준비하면 되겠다는 문제를 생각하게 하는 능동적인 독서태도를 기를 수 있다. 이러한 독서태도로 책을 읽게 하여 책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습관을 기르고, 정신을 집중하여 책을 읽는 습관을 형성하도록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책을 중심으로 한 독서토론은 다른 토론방식에서 얻을 수 없는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주제 토론들을 준비하는 가장 기초적인 단계라 할 수 있다. 독서토론은 힘들게 실시하는 주제 토론보다는 토론 주제에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으므로 누구나 자신 있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좋은 점이 있다. 그리고 독서토론은 개인적인 독서생활에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다 ① 여

러 사람이 선정하니까 좋은 책을 읽을 수 있다. ② 읽으면서 잘 이해가 가지 않았던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③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자극을 받을 수 있다. ④ 토론을 준비해야 하니까 책을 읽을 때 정신 집중이 된다. ⑤ 토론을 해야한다는 생각으로 읽으므로 궁리하는 습관이 생긴다.

Ⅲ. 독서토론의 실시와 진행

1. 독서토론의 실시 문제

독서토론은 책을 읽고 그 토론도서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쉽게 실시할 수 있는 토론방법이다. 뿐만 아니라 독자들이 토론 방법을 습득하는 훈련이 되면서 토론도서가 내포하고 있는 내용들이 토론자들에게 강하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많다. 그러나 토론은 혼자나 둘이 할 수 없으므로 토론을 하고 싶어도 토론할 기회를 갖을 수 없다는 것이 문제다. 토론은 여러 사람이 모여야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모임을 조직하여 그 모임 속에서 독서토론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독서회를 조직하여 독서후의 여러가지 독서활동을 실시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독서회 조직의 목적은 독서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조직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독서회 조직은 독서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물론이지만 독서생활을 습관적으로 하고 있다고 해도 독서회 활동을 해야 한다. 독서지도에서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을 책을 읽도록 지도하였을 때, 지도 받는 대상자가 책을 읽는 단계까지 왔다고 해도 독서지도가 모두 끝난 것은 아니다. 다음 단계로 읽은 후의 지도가 더욱 필요함으로 독서생활을 계속하게 하기 위하여 독서회원으로 활동하도록 한다.

그러므로 책을 읽으면서 생각하고 느꼈던 것들을 그 순간만으로, 또는 혼자만의 생각으로 끝나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거나 토의하면서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느끼는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한다. 독자가 이러한 생활을 하게 하기 위하여 독서회를 조직하고 운영한다.

독서회의 독서활동은 책을 읽은 후 여러 회원들의 의견으로 어려웠던 독서문제를 연구하고 해결하면서 독서문화를 향상시키는 계기가 된다. 이러한 독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독서회를 조직하여 활동하는데, 계층별 조직과 주제별 조직을 예로 들 수 있다. 계층별 조직은 취학전 어린이, 초, 중, 고, 대학생, 성인, 노인 중심으로 조직할 수 있고, 주제별 조직은 향토문화, 도서선정, 창작활동, 지역정보 등 연구 중심으로 조직하여 활동 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구분해 조직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더 세분해서 조직하여 활동 할 수 있다.

독서회에서 활동할 회원의 구성은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취미가 비슷하고 연령층 학력 등에 큰 차이 없어야 한다. 회원 수는 너무 많거나 적어도 안 되는데, 적게는 7~9명에서 많게는 15~16명이 좋다. 만약에 회원수가 많을 때는 7~9명으로 나누어 몇 개의 독서회로 분할 조직하여 연합으로 활동하도록 한다.

독서회 활동 프로그램은 회원들이 매주 한 번씩 모임을 갖도록 하여 한 달에 4번 모임을 갖도록 하고 독서토론은 한 달에 한 번씩 실시하도록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기본 프로그램은 연별, 월별 계획을 세우는데 매월 첫 째주는 월례회 모임으로 계획된 독서활동을 점검하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한다. 둘째 주는 개인별 독서발표를 실시하고, 셋 째주는 독서토론을 실시하고, 넷 째주는 실시한 토론도서에 대하여 정리하고 정리한 것을 윤독하거나 발표하도록 한다.

2. 독서토론의 진행

독서토론을 진행하는 방법에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자유토론 방법(원탁토론식)으로 많이 진행하고 있다. 자유토론 방법이란 사회자가 중심이 되어 진행되는 방법으로 토론에 참가하는 회원들이 토론 주제를 중심으로 자유 의사에 따라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방법이다. 먼저 사회자가 토론도서에 대한 전체적인 배경을 간단히 이야기하면서 저자에 대하여 연구한 내용을 발표하고, 대강의 줄거리를 발표한다. 그리고 참가자들로부터 토론할 주제를 받는다. 주제는 4~5개 정도를 받아 토론 순서를 정하고 나서 한 주제씩 토론에 들어간다. 한 주제별 소요시간은 10~15분 정도로 하면서 적당한 시간에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한다.

이외 여러 가지 독서토론 방법에는 ① 자유토론식 : 원탁식 토론으로 사회자 중심으로 진행되는 형식. ② 세미나식 : 대 주제를 두고 소 주제 3~4 개를 각각 발표자와 질문자가 발표하고 전 회원이 토론하는 형식. ③ 심포지엄식 : 발표자와 질문자 각각 3~4명이 의견을 말하고 그 의견들을 바탕으로 참석자가 질의 응답하는 형식. ④ 찬반토론식 : 미리 주제와 결론을 정해 놓고 찬반을 논하는 형식. ⑤ 포럼식 : 한 사람 또는 여러사람이 발표하고 청중이 질문하면서 토론하는 형식. ⑥ 패널식 : 4~6명이 대립되는 의견을 대표자 자격으로 청중 앞에서 논의하는 방식. ⑦ 연극식 : 책 내용의 주인공역을 맡아 연극하는 형식이 있다.

독서토론을 실시하는 방법은 위에서 소개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선택하여 실시하는데, 토론도서의 질적 양적 수준에 따라 토론방법을 결정해야 하고, 자유토론 방법(원탁토론식)이 아닌 경우에는 회원들이 맡은 역할이나 진행해야 할 분야를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 시간적 여유 토론 장소, 회원 수, 경비 등을 고려하여 토론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자유토론 방식을 따른다고 해도 진행을 맡을 사회자 선정과 토론이 끝나고 나면 평가해 줄 평가자를 미리 결정하여 독서토론을 준비하도록 한다.

자유토론은 사회자 중심의 토론이 되기 때문에 독서토론의 성공과 실패는 사회자에게 있다고 할 수 있다. 사회자는 원만한 토론의 진행을 위하여 자료의 철저한 연구는 물론 참가자들의 성격이나 평소의 활동에 대하여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토론 진행을 맡은 사회자는 다음과 같은 점은 토론을 진행하면서 유념하여야 한다. ① 사회자 자신의 발언으로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② 주제별로 토론할 때 한 주제에 시간을 많이 낭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토론에 참여한 회원 중에 발언을 앓고 있는 회원에게는 유도 질문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④ 발언하는 회원들이 한 두 회원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발언자들을 배려해야 한다. ⑤ 회원들이 엉뚱한 이야기로 시간을 낭비할 때는 곧 조절해야 한다. ⑥ 회원이 발언하면서 물증을 보일 경우 도와주고 확인 해 주어야 한다. ⑦ 토론의 결과에 대하여 결론을 내리려 하지 말고 적당한 선에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한다.

그리고 토론에 참가한 회원들은 토론을 통하여 자기 발전을 가져오고, 독서토론의 성공으로 독서회가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점에 유념하면서 토론을 진행해야 한다. ① 토론의 중요한 점은 혼자 의견만을 독점적으로 발언하는 것이 아니라 다같이 문제를 풀어 나가려고 노력해야 한다. ② 토론에서 민주주의적인 토론이라고 다수의 의견만 내세우는 것보다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야 한다. ③ 토론 참가자들은 서로의 의견을 솔직히 교환하고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④ 토론할 때는 자신의 의견만 발표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주장을 상대방에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득해야 한다. ⑤ 만약 반대의 의견을 제시할 때는 상대방의 모순에 대한 이유와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혀 비판해야 한다. ⑥ 토론의 합의점을 찾기 어려울 경우 결론을 내리려 하지 말고 참가자들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⑦ 토론 도중 감정이 격해져 상대방을 모독하는 발언을 할 수 있는데 자극적인 발언은 삼가 해야 한다. ⑧ 자기의 의견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틀린다고 하거나, 나쁘다고 하거나 무시하고 강압적인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 ⑨ 상대방의 이야기가 아무리 타당하지 않아도 자기의 의견을 말하기 위해 끼어 들어가는 안 된다.

독서토론을 보통 10여명이 할 때 1시간에서 2시간 정도(100분 정도)가 알맞는데 초·중·고등 학생들은 1시간(50~60 분)이 알맞다. 토론 시간은 너무 길면 지루하고 짧으면 회원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하지 못한 상태에서 끝을 맺게되어 많은 것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개인의 발언은 주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 될 때마다 한 사람에게 1회에 2~3분내의 시간을 주고 1~3번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IV. 독서토론의 활성화 방법

1. 독서 토론자료 작성 방법

토론도서 선정은 고전을 중심으로 한다면 토론 논제에 접근하기 쉽고, 토론 자료도 충분히 수집할 수 있어서 좋다. 그러나 현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도서를 중심으로 결정한다면 흥미가 있고 관심이 높기 때문에 토론이 잘 진행될 수 있는 좋은 점도 있다. 그러나 독서토론은 일반적인 책을 중심으로 선정하기보다는 토론 그룹에 알 맞는 도서를 선정하여 토론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또 주제나 내용에 따라 토론도서를 선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독서토론의 훌륭한 진행과 성공적인 토론을 하기 위해서는 토론 진행의 역할을 맡은 사람뿐만 아니라 회원 모두가 반드시 토론도서를 정독하고 발표자료를 준비하여 참여해야 한다. 이러한 발표준비는 책만 읽고 준비하는 것보다는 참고가 될 자료를 더 찾아 읽어, 많이 생각하고 정확하게 정리하여 토론 장소에 나타나는 것이 토론자로서 자격을 갖추는 것이다.

토론도서를 읽을 때 책 내용을 분석하면서 읽으면 토론 자료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된다. 즉 독서토론 자료 작성으로 다음과 같은 <분석식 독서법>²⁾에 의하여 책을 읽는다면 토론도서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서 독서토론을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① 토론도서의 저자와 책에 대한 연구. ② 토론도서가 발행된 뒤의 내용으로 읽는데 참고가 될 이야기. ③ 토론도서를 읽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정독도서]³⁾로 적당하여, 추천하는 이유에 대하여. ④ 토론도서와 내용이나 주제가 비슷하거나 수준이 비슷해 전개해서 읽는 책들의 안내. ⑤ 토론도서를 통하여 정보능력과 관찰력을 기르고 종합하는 힘을 기르기 위해 읽으면서 실천할 사항들 즉 -토론도서를 읽으면서 생각하고 찾아 읽어야 할 내용이나 사건에 대한 문제들. -토론도서를 읽은 후 토의나 토론해야 할 문제들. -독자가 토론도서에 대하여 꼭 정리 기록해야 할 문제들. ⑥ 토론도서에 대하여 작성자가 독자들에게 하고싶은 이야기들이다.

독서토론에 참여하기 위해 토론자료를 작성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토론도서를 읽으면서 내용이나 사건 주인공 등의 성격 파악은 물론 비판하고 평가하면서 먼저 토론해야 할 주제를 선정해야 한다. 특히 작가를 깊이 연구하면서 내용이나 주제를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이 토론에서 주장해야 하는 주제의 문제나 내용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정리해 둔다.

독서토론 준비에 도움이 되도록 제공한 <분석식 독서> 방법으로 읽으면서 자신이 주장할 토론 주제를 선정하고, 토론 주제를 중심으로 발언하고 상대방의 의견에 대하여 설득할 자료를 스

2) 책을 읽을 때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읽기 전 또는 읽으면서 몇 가지 문제들을 생각하게 하고, 어떤 것은 조사하면서 읽도록 하는 독서방법을 말한다.

3) 책의 내용을 가볍게 보고 취급하면서 읽지 말고 정신을 집중하여 읽어야 할 책을 말한다.

스로 준비하도록 한다.

2. 독서토론 평가 방법

독서토론 후에는 토론에 대한 결과를 평가하여 토론의 효과를 높이도록 한다. 먼저 토론에 관한 종합적인 결과를 수치로 나타내 전체적인 결과를 파악하도록 하고, 독서토론을 진행하면서 또는 토론을 마치고 나면 개인적으로는 자신에 대한 평가를 스스로 하겠지만 토론에 참여한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대해서도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으므로 질문지를 통하여 조사한 결과를 종합 통계처리 하여 공개해 참고하도록 한다. 이러한 종합적인 결과는 각 개인들이 자신의 생각과 비교하는데 도움을 주고, 독서토론 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자신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긴 시간 동안 서로 자신의 주장을 열심히 주장했지만 이것은 모두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자신의 생각을 역설했을 뿐임으로 토론의 결론에 대해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토론 후에는 그 동안 자신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이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면 그 만큼 자신은 성장한 것이 된다. 현명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말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비교해 가면서 발전시키기 때문에 이러한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하고, 토론을 통해 느끼고 생각했던 전체적인 것을 정리하는 습관을 갖도록 한다.

독서토론에 관한 평가는 먼저 자신이 독서토론을 위해 준비를 얼마나 했는가를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질문지와 독서토론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준비를 해 왔는가를 관찰할 수 있는 방법을 질문지를 통해 알 수 있도록 한다.

먼저 자신이 독서토론을 실시하기 위해 준비한 결과를 척도 5단계로 다음과 같은 다섯 문항을 통해 조사 분석한다. ① 오늘 독서토론에 참여하면서 <토론도서>에 대한 전체적인 주제를 잘 파악하고 참석했습니까? ② 오늘 독서토론에 참여하면서 <토론도서>의 내용을 잘 파악하고 참석했습니까? ③ 오늘 독서토론에 참여하면서 <토론도서>에 대한 줄거리를 잘 파악하고 참석했습니까? ④ 오늘 독서토론에 참여하면서 <토론도서>에 대해 토론할 주제를 잘 선정하고 참석했습니까? ⑤ 오늘 독서토론에 참가한 자신은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했다고 생각합니까?

다음은 독서토론에 참석하여 여러 사람들과 토론을 같이 진행하면서 느꼈던 결과를 다음과 같은 문항으로 질문하여 조사 분석한다. ① 오늘 독서토론에 참여한 회원들은 <토론도서>에 대하여 전체적인 주제를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② 오늘 독서토론에 참여한 회원들은 <토론도서>에 대하여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③ 오늘 독서토론에 참여한 회원들은 <토론도서>에 대하여 줄거리를 잘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④ 오늘 독서토론에 참여한 회원들은 <토론도서>에 대해 토론할 주제를 적절하게 선정했다고 생각합니까? ⑤ 오늘 독서토론에 참가한 회원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했다고 생각합니까?

V. 독서 토론자료 활용에 관한 분석 및 결과

독서토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분석식 독서법>에 의해 토론자료를 준비해 토론에 참여하도록 하고, 토론 후에는 질문지를 통해 독서토론에 대해 스스로 평가하는 방법을 실시해 그 결과를 분석 검토했다. 조사한 질문지는 내용이 같은 질문지로 8번 조사하고, 4번 째 조사할 때는 <분석식 독서법>에 의한 자료를 활용한 후 독서토론에 참여하도록 했다.

<분석식 독서법>으로 자료를 준비해 독서토론에 참여하기 전에 독서토론에 참여하는 태도를 알아보는 방법으로 먼저 한 달에 한 번씩 독서토론을 실시하면서 질문지 조사를 3번 실시했으며, 4) <분석식 독서법>으로 독서토론 자료를 준비하여 토론에 참여하게 한 뒤 한 번 조사하고 5) <분석식 독서법> 자료를 활용한 후 같은 방법으로 독서토론 자료를 얼마나 준비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3번 6) 조사하여 7개월간 7번 조사하고, 1년 후에 8번째 7) 한 번 더 조사했다.

독서토론에 참여한 학생들은 대학생 중심의 독서활동 동아리 회원들로 <분석식 독서법> 자료를 활용하기 전 1,2,3차에 참여한 총 학생은 43명이며, 자료를 활용할 당시의 참여 학생은 15명, 자료활용 후 1,2,3차 참여한 총 학생은 28명, 1년 후인 8차에 참여한 1학년을 제외한 9명으로 모두 95명이 참여했다. 참여한 회원들은 대학 1학년년부터 4학년까지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많다. 독서토론 진행 시간은 보통 2시간이 소요되었으며 8회 모두 사회자 중심인 자유토론식으로 진행되었다.

-
- 4) 1차 조사 독서토론 참석자 12명. 제196차 독서토론. 일시 : 2003.1.19. 장소 : 대학로 민들레영토. 토론도서 : 죽은 시인의 사회 / 톰 솔만 ; 2차 조사 독서토론 참석자 8명. 제 197차 독서토론. 일시 : 2003. 2.22. 장소 : 신촌 민들레영토. 토론도서 : 아주 오래된 농담 / 박완서 ; 3차 조사 독서토론 참석자 23 ; 제197차 독서토론. 일시 : 2003.3.26. 장소 : 강남대학교 천은관 404호. 스무살이 넘어 다시 읽는 동화 / 웬디 패리스.
- 5) 4차조사 제199차 독서토론 참석자 15명. 독서 토론도서 : 마당 깊은 집 / 김원일 일시 : 2003.4.26. 장소 : 신촌 민들레영토. 독서토론 자료를 <분석식 독서법>으로 읽고 토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자료를 성하여 배포하고 또 홈페이지에 탑재했다. 내용은 부록 참고.
- 6) 5차 조사 독서토론 참석자 9명. 제200차 독서토론. 일시 : 2003.5.31. 장소 : 대학로 민들레영토. 토론도서 : 뇌 / 베르나르 베르베르 ; 6차 조사 독서토론 참석자 10명. 제201차 독서토론. 일시 : 2003. 6.21. 장소 : 대학로 민들레영토. 토론도서 : 파페포포 메모리즈 / 심승현 ; 7차 조사 독서토론 참석자 9명. 제202차 독서토론. 일시 : 2003.7.19. 장소 : 여의도 공원 국화꽃 향기 / 김하인
- 7) 8차 조사 제215차 독서토론 참여자 9명. 독서 토론도서 : 도련님 / 나쓰메 소세키 일시 : 2004.8.23. 장소 : 강남대학교 천은관 403 호

1. 독서토론 참가자 자신의 준비에 관한 결과

독서토론에 참여한 학생들이 토론도서를 읽을 때 독서토론에 참여하기 위해 토론도서를 읽어야 한다는 의무감 때문에 무조건 읽고 토론을 준비하는 것보다는 <분석식 독서법>으로 읽으면서 토론 자료를 준비한다면 토론의 효과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토론 준비를 <분석식 독서법>으로 토론도서를 읽도록 지도한 결과를 분석했다.

먼저 자기 자신이 독서토론에 참여하고 나서 토론한 결과를 스스로 평가하도록 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표 1-1>부터 <표 1-5>까지 5가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표 1-1> 전체적인 주제를 파악하고 토론에 참여했습니까?

척도	응답 내용	토론자료 활용 전	토론자료 활용당시	토론자료 활용 후	토론 자료 활용1년후	평균
1	절대 아니다	0(00.0)	0(00.0)	0(00.0)	0(00.0)	0(00.0)
2	아니다	7(16.3)	0(00.0)	0(00.0)	0(00.0)	7(07.4)
3	보통이다	11(25.6)	2(13.3)	6(21.4)	5(55.6)	24(25.3)
4	그렇다	21(48.6)	6(40.0)	18(64.3)	4(44.4)	49(51.6)
5	정말 그렇다	4(09.3)	7(46.7)	4(14.3)	0(00.0)	15(15.8)
계		43명(100%)	15명(100%)	28명(100%)	9명(100%)	95명(100%)

토론도서에 대하여 저자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했는가에 대하여 잘 알고 토론에 참여했는가를 묻는 질문에 <표 1-1>에서 보면 다음과 같다. <분석식 독서법>으로 토론도서를 읽고 토론에 참가한 경우가 86.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료 활용 후 3번 조사한 결과에서도 78.5%로 활용하기 전보다는 아주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4단계조사 결과 평균 67.4%보다 높게 나타나 독서토론 준비를 위해 좋은 방법이다.

<표 1-2> 내용을 잘 파악하고 토론에 참여했습니까?

척도	응답 내용	토론자료 활용 전	토론자료 활용당시	토론자료 활용 후	토론 자료 활용1년후	평균
1	절대 아니다	0(00.0)	0(00.0)	0(00.0)	0(00.0)	0(00.0)
2	아니다	5(11.5)	0(00.0)	1(03.6)	1(11.1)	7(07.4)
3	보통이다	6(14.0)	3(20.0)	6(21.4)	3(33.3)	18(18.9)
4	그렇다	26(60.5)	6(40.0)	17(60.7)	5(55.6)	54(56.8)
5	정말 그렇다	6(14.0)	6(40.0)	4(14.3)	0(00.0)	16(16.8)
계		43명(100%)	15명(100%)	28명(100%)	9명(100%)	95명(100%)

토론도서의 내용 파악에 대한 결과를 <표 1-2>에서 보면 큰 차이 없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 <분석식 독서법>으로 토론도서를 읽고 토론에 참가한 경우가 8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료 활용 후 3번 조사한 결과에서도 75.0%, 활용하기 전 74.9%, 평균 73.6%로 나타나 토론도서의 내용 파악은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나면서 큰 차이가 없었다.

<표 1-3> 줄거리를 잘 파악하고 토론에 참여했습니까?

척도	응답 내용	토론자료 활용 전	토론자료 활용당시	토론자료 활용 후	토론 자료 활용1년후	평균
1	절대 아니다	0(00.0)	0(00.0)	0(00.0)	0(00.0)	0(00.0)
2	아니다	4(09.3)	0(00.0)	2(07.1)	1(11.1)	7(07.4)
3	보통이다	10(23.3)	4(26.7)	6(21.4)	1(11.1)	21(22.1)
4	그렇다	24(55.8)	7(46.6)	16(57.2)	7(77.8)	54(56.8)
5	정말 그렇다	5(11.6)	4(26.7)	4(14.3)	0(00.0)	13(13.7)
계		43명(100%)	15명(100%)	28명(100%)	9명(100%)	95명(100%)

토론도서의 줄거리 파악에 대한 결과를 <표 1-3>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큰 차이 없이 모두 고르게 나타나면서 긍정이었다. <분석식 독서법>으로 토론도서를 읽고 토론에 참가한 경우가 73.3%, 1년 후에 조사한 결과가 77.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은 70.5%로 토론도서의 줄거리 파악은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나면서 큰 차이가 없었다.

<표 1-4> 주제를 잘 선정하고 토론에 참여했습니까?

척도	응답 내용	토론자료 활용 전	토론자료 활용당시	토론자료 활용 후	토론 자료 활용1년후	평균
1	절대 아니다	0(00.0)	0(00.0)	0(00.0)	0(00.0)	0(00.0)
2	아니다	8(18.6)	0(00.0)	0(00.0)	3(33.3)	11(11.6)
3	보통이다	22(51.2)	2(13.3)	16(57.1)	5(55.6)	45(47.4)
4	그렇다	12(27.9)	7(46.7)	8(28.6)	1(11.1)	28(29.5)
5	정말 그렇다	1(02.3)	6(40.0)	4(14.3)	0(00.0)	11(11.6)
계		43명(100%)	15명(100%)	28명(100%)	9명(100%)	95명(100%)

토론준비의 핵심인 토론의 주제 선정을 <표 1-4>에서 보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분석식 독서법>으로 토론도서를 읽고 토론에 참가한 경우가 86.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료 활용 후 3번 조사한 결과에서는 42.9%, 활용하기 전에는 28.2%, 1년 후의 조사에서는 11.1%, 평균은 41.1%로 나타나 활용한 경우가 아주 높게 나타났다.

<표 1-5>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했다고 생각합니까?

척도	응답 내용	토론자료 활용 전	토론자료 활용당시	토론자료 활용 후	토론 자료 활용1년후	평균
1	절대 아니다	1(02.3)	0(00.0)	0(00.0)	0(00.0)	1(01.1)
2	아니다	11(25.6)	1(06.7)	5(17.9)	2(22.3)	19(20.0)
3	보통이다	18(41.9)	3(20.0)	11(39.3)	4(44.4)	36(37.9)
4	그렇다	12(27.9)	9(60.0)	9(32.1)	3(33.3)	33(34.7)
5	정말 그렇다	1(02.3)	2(13.3)	3(10.7)	0(00.0)	6(06.3)
계		43명(100%)	15명(100%)	28명(100%)	9명(100%)	95명(100%)

토론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으며, 또 독서토론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자신이 생각을 토론자들에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결과를 <표 1-5>에서 보면 자료의 활용 때 73.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활용하기 전 30.2%, 활용 후 42.8%, 1년 후는 33.3%로 모두 부정 에 가까웠지만 활용한 경우와 비교할 경우 아주 높게 나타났다.

2. 독서토론 전체 참가자들의 준비에 관한 결과

독서토론에 참여한 학생들과 자신을 비교하여 토론의 준비와 진행에 대한 결과를 질문지를 통해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는 <표 2-1>부터 <표 2-5>와 같다.

독서토론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토론을 진행하면서 혹은 토론을 마치고 나서 독서토론에 대한 느낌을 스스로 평가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토론 참여에 대하여 반성할 수 있고 또 결과를 정리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을 적극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분석식 독서법> 으로 토론 자료를 준비하게 하고 토론에 참여하도록 했다.

<표 2-1> 전체적인 주제를 파악하고 토론에 참석한 것 같습니까?

척도	응답 내용	토론자료 활용 전	토론자료 활용당시	토론자료 활용 후	토론 자료 활용1년후	평균
1	절대 아니다	0(00.0)	0(00.0)	0(00.0)	0(00.0)	0(00.0)
2	아니다	5(11.6)	1(06.7)	1(03.6)	2(22.2)	9(09.5)
3	보통이다	14(32.6)	9(60.0)	11(39.3)	5(55.6)	39(41.1)
4	그렇다	24(55.8)	5(33.3)	16(57.1)	2(22.2)	47(49.5)
5	정말 그렇다	0(00.0)	0(00.0)	0(00.0)	0(00.0)	0(00.0)
계		43명(100%)	15명(100%)	28명(100%)	9명(100%)	95명(100%)

토론에 참여한 학생들과 토론을 진행하면서 느낀점을 자기와 비교했을 때 토론도서 에 대한 주제를 파악을 얼마나 했는가에 대한 조사 결과를 <표 2-1>에서 보면 자기와 비교했을 때 평균

49.5%로 다른 사람들은 준비를 아주 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분석식 독서법>으로 토론도서를 읽고 토론에 참가한 경우가 33.37%로 아주 부정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반면에 <표 1-1>의 자기 중심에서는 자료를 활용할 경우 80.7%로 나타났었다.

<표 2-2> 내용을 잘 파악하고 토론에 참석한 것 같습니다?

척도	응답 내용	토론자료 활용 전	토론자료 활용당시	토론자료 활용 후	토론 자료 활용1년후	평균
1	절대 아니다	0(00.0)	0(00.0)	0(00.0)	0(00.0)	0(00.0)
2	아니다	2(04.6)	1(06.7)	1(03.6)	2(22.2)	6(06.3)
3	보통이다	16(37.2)	9(60.0)	4(14.2)	4(44.5)	33(34.7)
4	그렇다	23(53.5)	5(33.3)	22(78.6)	3(33.3)	53(55.8)
5	정말 그렇다	2(04.7)	0(00.0)	1(03.6)	0(00.0)	3(03.2)
계		43명(100%)	15명(100%)	28명(100%)	9명(100%)	95명(100%)

<표 2-2>는 토론도서의 내용 파악에 대한 질문으로 토론에 참여한 학생들과 같이 토론하면서 느낀점을 자기와 비교했을 때 토론도서에 대한 내용을 얼마나 파악하고 참여했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대한 조사 결과이다. <표 2-2>에서 보면 자기와 비교했을 때 평균 59.0%로 낮게 나타났으며, 활용 당시는 더 낮아져 33.3%다. 그러나 활용 후는 82.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기 중심은 <표 2-2>에서 보면 80.0%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2-3> 즐거리를 잘 파악하고 토론에 참석한 것 같습니다?

척도	응답 내용	토론자료 활용 전	토론자료 활용당시	토론자료 활용 후	토론 자료 활용1년후	평균
1	절대 아니다	0(00.0)	0(00.0)	0(00.0)	0(00.0)	0(00.0)
2	아니다	3(07.0)	3(20.0)	0(00.0)	4(44.5)	10(10.5)
3	보통이다	19(44.2)	7(46.7)	6(21.4)	2(22.2)	34(35.8)
4	그렇다	19(44.2)	5(33.3)	21(75.0)	3(33.3)	48(50.5)
5	정말 그렇다	2(04.6)	0(00.0)	1(03.6)	0(00.0)	3(03.2)
계		43명(100%)	15명(100%)	28명(100%)	9명(100%)	95명(100%)

토론도서의 즐거리 파악에 대하여 토론에 참여한 학생들과 토론을 진행하면서 자기와 느낀점을 비교했을 때 <표 2-3>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낮게 나타나 평균 53.7%다. 특히 <분석식 독서법>으로 토론도서를 읽고 토론에 참가한 경우가 33.3%로 부정적인데 참여한 학생들이 토론 준비를 안하고 참여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은 자기 중심인 <표 1-3>에서 보면 평균 70.5%로 높게 나타나 자신은 파악하고 참여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본다.

<표 2-4> 주제를 적절하게 선정했다고 생각합니까?

척도	응답 내용	토론자료 활용 전	토론자료 활용당시	토론자료 활용 후	토론 자료 활용1년후	평균
1	절대 아니다	0(00.0)	0(00.0)	0(00.0)	0(00.0)	0(00.0)
2	아니다	4(09.3)	0(00.0)	0(00.0)	2(22.2)	6(06.3)
3	보통이다	20(46.5)	5(33.3)	12(42.8)	6(66.7)	43(45.3)
4	그렇다	16(37.2)	10(66.7)	15(53.6)	1(11.1)	42(44.2)
5	정말 그렇다	3(07.0)	0(00.0)	1(03.6)	0(00.0)	4(04.2)
계		43명(100%)	15명(100%)	28명(100%)	9명(100%)	95명(100%)

토론의 진행을 위해 제일 먼저 결정해야 하고, 가장 핵심인 토론의 주제 선정을 <표 2-4>에서 보면 전체 평균 48.4%에 비해 자료를 활용한 경우가 66.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토론도서의 주제와 내용, 줄거리 파악은 <분석식 독서법>을 활용하였을 때가 가장 저조하게 나타났는데 주제 파악만은 높게 나타났다.

독서토론 활동에서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한다는 것은 독서토론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활동이다. 그런데 <표 2-5>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아주 낮게 나타나 평균 38.9%다. 특히 <분석식 독서법>으로 토론도서를 읽고 토론에 참가하게 한 경우가 26.7%로 아주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자기 중심인 <표 1-5>의 독서토론 참여 활동에서는 <분석식 독서법>으로 토론을 준비하고 참여한 경우가 73.3%로 가장 높게 나타나 자신이 준비한 경우와 비교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토론 준비에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높아지고 있다.

<표 2-5> 회원들은 의견을 충분히 전달했다고 생각합니까?

척도	응답 내용	토론자료 활용 전	토론자료 활용당시	토론자료 활용 후	토론 자료 활용1년후	평균
1	절대 아니다	1(02.3)	0(00.0)	0(00.0)	0(00.0)	1(01.1)
2	아니다	6(14.0)	6(40.0)	4(14.3)	2(22.2)	18(18.9)
3	보통이다	21(48.8)	5(33.3)	9(32.1)	4(44.5)	39(41.1)
4	그렇다	13(30.2)	4(26.7)	13(46.5)	3(33.3)	33(34.7)
5	정말 그렇다	2(04.7)	0(00.0)	2(07.1)	0(00.0)	4(04.2)
계		43명(100%)	15명(100%)	28명(100%)	9명(100%)	95명(100%)

독서토론에 참여하기 전에 <분석식 독서법>으로 토론 준비를 할 경우 자신의 토론 활동에서 아주 만족스런 활동으로 나타나났지만, 토론에 참여한 다른 사람들의 토론 준비는 아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VI. 결론 및 제언

독서활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독서후의 활동인 독서토론은 많은 독서 효과를 얻기 위하여 독서토론을 실시하지만 그렇게 좋은 결과를 얻어내지 못하고 있다. 어렵게 읽은 책을 통하여 스스로 느끼고 생각해 낸 것들을 혼자만이 소유하고 있다가 얼마 후에는 그 좋은 생각들을 실생활에 활용하지 못하고 놓쳐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독서후의 활동으로 읽고 느낀 내용을 또는 생각한 것들을 토론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이러한 독서후의 활동은 책을 읽고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 여러 사람과 논의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자기 자신에 대한 내면의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러나 독서토론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토론하는가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토론장에 나타나야함으로 독서토론은 어렵게 진행될 뿐만 아니라 좋은 효과도 얻지 못하고 있다.

독서토론 진행에서 <분석식 독서법>으로 준비하여 토론에 참여하도록 한 결과 토론도서의 주제와 내용, 줄거리 파악은 물론 토론할 주제 선정 등 모두 좋은 결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경우는 다른 경우에 비교해 높게 나타났지만, 만족스럽게 표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토론에 참여한 다른 사람들의 토론 준비와 토론 활동을 자신과 비교했을 때 각 사항마다 불만족이 반비례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자신이 적극적인 준비했을 때 더 반비례적으로 나타나 독서토론은 역시 어렵기 때문에 더 충분한 독서토론을 준비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할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 강원경. 독서클럽 활동양상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육대학교 대학원, 1999.
- 김동훈 엮음. 우리소설 토론해봅시다(현대소설). 서울 : 새날, 1995.
- 김승환. “독서자료 분석제공이 독서활동에 미치는 영향: 독서캠프 프로그램의 독서 후 독서활동을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7권, 제4호(2003,12), pp.89.
- 김환열. TV 토론의 이해. 서울 : 커뮤니케이션북스, 2000.
- 민영옥. 성공하는 사람들의 토론의 법칙. 서울 : 가림출판사, 2003.
- 윤치영. 당신도 토론의 달인이 될 수 있다. 서울 : 느낌이있는나무, 2003.
- 이연택. 토론의 기술. 서울 : 21세기북스, 2003.
- 천대운. 토의 토론 회의 방법론 서울: 선학사 2004.

하병학. 토론과 설득을 위한 우리들의 논리. 서울 : 철학과현실사, 2000.

한남대 국문과 교양교재편찬위원회. 독서와 토론. 대전 : 역락, 2002.

브로디, 바루흐. 응용윤리학(토론수업을 위한), 황경식 역. 서울 : 철학과현실사, 2000.

쇼펜하우어. 토론의 법칙(쇼펜하우어의), 최성욱 역. 서울 : 원앤원북스, 2003.

슬라이허르트, 후베르트. 꿀통들과 뚜껑 안 열리고 토론하는 법, 최훈 역. 서울 : 뿌리와이파리, 2003.

<http://trrcamp.org>

K C I

7. 다음은 독서토론에 참여하기 위해 토론도서를 읽으면서 준비한 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숫자에 ○표를 해주기 바랍니다. 숫자가 높을수록 긍정적입니다

순서	질문지 내용	절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정말 그렇다
1	오늘 독서토론에 참여하면서 <토론도서>에 대한 전체적인 주제를 잘 파악하고 참석했습니까?	1	2	3	4	5
2	오늘 독서토론에 참여하면서 <토론도서>의 내용을 잘 파악하고 참석했습니까?	1	2	3	4	5
3	오늘 독서토론에 참여하면서 <토론도서>에 대한 줄거리를 잘 파악하고 참석했습니까?	1	2	3	4	5
4	오늘 독서토론에 참여하면서 <토론도서>대해 토론할 주제를 잘 선정하고 참석했습니까?	1	2	3	4	5
5	오늘 독서토론에 참가한 자신은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했다고 생각합니까?	1	2	3	4	5

8. 다음은 독서토론에 참여한 회원들과 토론을 같이 진행하면서 느낀 것에 관한 의견을 묻는 질문입니다. 숫자가 높을수록 긍정적입니다. ○표를 하기 바랍니다.

순서	질문지 내용	절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정말 그렇다
1	오늘 독서토론에 참여한 회원들은 <토론 도서>에 대하여 전체적인 주제를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1	2	3	4	5
2	오늘 독서토론에 참여한 회원들은 <토론 도서>에 대하여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1	2	3	4	5
3	오늘 독서토론에 참여한 회원들은 <토론 도서>에 대하여 줄거리를 잘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1	2	3	4	5
4	오늘 독서토론에 참여한 회원들은 <토론 도서>에 대해 토론할 주제를 적절하게 선정했다고 생각합니까?	1	2	3	4	5
5	오늘 독서토론에 참가한 회원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했다고 생각합니까?	1	2	3	4	5

응답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부록 2] <분석식 독서> 자료 작성의 예

주제 : 전쟁이 만들어 낸 14살 소년이 살아가는 삶의 무게	
도 서 명	마당깊은 집 : 문학과지성사 소설 명작선 ; 15
저작사항	김원일 지음, 292쪽, 18.0×22.5cm.
출판사항	서울 : 문학과지성사, 2002년 11월 9일 (보급판), ISBN 89-320-1012-9

1. 저자에 대한 연구

저자 김원일은 1942년 경남 김해에서 출생했으며, 서라벌예술대학,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다. 1966년 '매일신문' 문학상에 단편 <알제리아의 추억>이 당선되어 문단에 등단하여 분단문학의 대표적 작가가 되었다. 율복한 공산주의자를 아버지로 둔 땅에를 문학적 화두로 승화하여 훌륭한 작품들을 다수 창작했다. 30년 넘게 김원일의 문학세계를 지배했던 '분단문학'은 초기작 <어둠의 혼> 과 장편 <노을>, <불의 제전>, 그리고 <마당 깊은 집> 등에 잘 표출되어 있다. 현대문학상, 우경문화 예술상, 이상문학상, 황순원문학상을 수상한 바 있다. 작품으로 <히로시마의 불꽃>, <겨울 골짜기>, <슬픈시간의 기억> 등이 있다.

2. 본 도서가 발행 된 뒤 이 세상에 알려진 이야기나 사회에 미치게 될 영향은

2002년도에 처음 시작하여 많은 호응을 얻으면서 책읽기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MBC TV 인기 프로그램 "MBC!느낌표, 책을 읽읍시다"에서 열 한 번째로 선정된 도서다 <마당깊은 집>은 저자 김원일이 1988년 처음 발행하여 1997년까지 발행해 오다가 1998년 재판을 발행하고, 2002년 11월에는 보급판으로 발행했다. TV 방송 프로그램 '책을 읽읍시다'의 도서로 선정되면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는데, 교보문고에서 제공한 베스트셀러 정보 목록을 정리한 결과 2002년도 우리 나라 후반기 소설분야 9위를 차지했는데 2003년 전반기에도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라오고 있다.

세계 2차 전쟁 이후 냉전이 계속되던 세계가 1990년경 소련의 붕괴로 다소 안정이 계속되던 세계는 2001년 9.11사태를 맞이하면서부터 국제질서가 다시 불안해지고 있다. 이제는 미국의 중동지역의 전쟁과 공격 계획으로 다시 세계가 전쟁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전쟁의 공포 속에서 우리 민족의 동족간 갈등을 깊이 생각하게 하는 소설이다.

3. 본 도서를 읽고 나서 비판해 본 결과 무엇 때문에 추천하는가

이 책은 6·25 직후의 어렵고 힘들었던 한 가족의 삶을 다룬 전후 소설이며 작가의 자전적 소설이다. 또한 민족의 근대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소설이기도 하다. 전쟁의 아픔을 간직한 장년들에게는 추억으로, 젊은 독자들에게는 전쟁의 아픔을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전쟁 속에서 겪었던 궁핍함과 절박함이 우리 민족에게는 빠질 수 없는 또 하나의 정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전쟁의 아픔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끈뚱하게 살아가는 모자간의 모습 속에서 절망보다는 희망을 향한 삶의 의지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전쟁이든 현장에 있었던 그들에게는 비극을 주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추천한다

4. 본 도서와 내용과 주제가 비슷하거나 수준이 비슷한 책들

◇ 몽실언니 / 권정생 ◇ 슬픈시간의 기억 / 김원일

5. 본 도서를 통하여 정보능력과 관찰력을 기르고 종합하는 힘을 기르기 위해 읽으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실천하도록 하자.

가. 본 도서를 읽으면서 생각하고 찾아 읽어야 할 내용이나 사건에 대한 문제들

- ① 6.25 직후 대구에 있었던 신문사 3개는 무슨 신문사였는가
- ② 비가 왔을 때 마당에 물이 차자 삼을 들고 일한 사람은
- ③ 불의에 죽음을 당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 ④ 장작으로 인하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무엇들이나
- ⑤ 6.25 전쟁이 확실하게 갈라놓은 것은 무엇이라고 했는가
- ⑥ 준호 아버지는 동네 아이들 상대로 무슨 장사를 했는가
- ⑦ 대구사범대학교에 특차로 입학하기 위해 지원할 예정자는
- ⑧ 씨아이씨로 수갑이 채어 끌려간 사람들은

나. 본 도서를 읽은 후 토의나 토론해야 할 문제들

- ① 주인공 길남이와 그 외 사람들의 삶의 의지에 대해
- ② 우리가 알고 있는 6.25는 무엇인가
- ③ 전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인가
- ④ 근년에 일어난 전쟁들의 이념에 대하여
- ⑤ 전쟁의 위기에 대한 우리들의 대처 방안은

다. 본 도서에 대하여 꼭 정리 기록해야 할 문제들

- ① 각 주인공들의 개성에 의한 삶의 방식에 대해
- ② 6.25에 의한 우리 나라 사회의 변화 문제에 대해
- ③ 세계 속에서 인식해야 하는 전쟁과 민족정신

6. 본 도서에 대하여 작성자 자신의 의견은

6.25란 전쟁을 통한 우리 민족의 비극적인 현실 속에서도 ‘마당’이라는 단어에서 풍기는 어우러짐처럼 이 책에 나오는 인물들의 다양한 삶 속에서 우리 민족의 생활을 깊이 있게 관찰할 수 있었으며, 또 그 시대의 민족사를 읽을 수 있었던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 그들이 궁핍한 생활 속에서도 서로 도와가며 끈끈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고, 전쟁의 이데올로기와 참상 속에서도 곳곳하게 피어오른 밝은 빛은 우리들에게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갖게 하고 있다.

작성일 : 2003년 2월 13일

작성자 : 김수경 (독서캠프지도자 연수 제1기)

참고할 사항

토론도서로 선정된 <마당깊은 집>을 토론할 때 본 자료에서 제시한 토론주제는 (문항 5-나) 참고할 뿐이지 이 주제를 가지고 토론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자료를 참고로 하여 토론도서를 읽으면서 토론할 수 있는 좋은 주제를 선정하고, 내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